



C(현재)

‘소록도의 아픔’ 벽화예술로 치유한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낯선 친구 만나면/우리를 문둥이끼리 반갑다/~/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쫓겨가리며 가는 길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한센병 시인 한하운의 ‘전라도 길(소록도 가는길)’)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小鹿島), 다리가 놓이기 전만 하더라도 물과 5분 거리 섬인데도, 멀고 먼 섬이었다. ‘천형(天刑)의 땅’, 유배지에 대한 물사람들의 멸시와 차별의 눈길은 가뭇이나 슬픈 한센인들의 마음을 굳게 닫게 했고 그만큼 더 섬 속의 섬으로 격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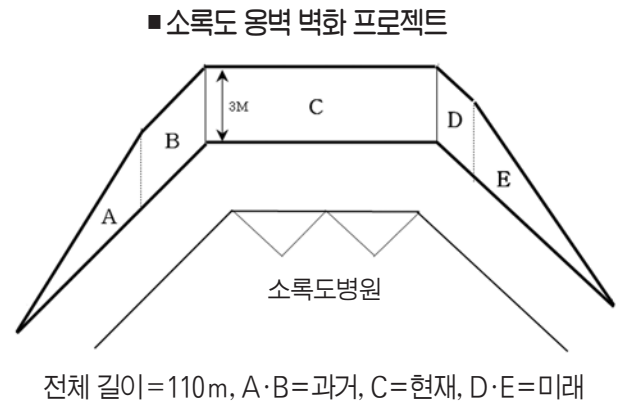
오랜 세월, 마음 한 켠 응어리진 채 살아온 소록도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물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깊은 문화 운동이 펼쳐진다. 남포미술관의 기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웅벽 벽화 프로젝트’로, 10명의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로 나서는 한편, 이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소록도 펀딩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흔히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매개체로 삼아 이뤄진다. 참여 예술가들은 박대조·이영지(한국화), 김병진·강득봉·이경재·박민정·변숙경(이상 조각), 오영수·박서운·오기근(이상 서양화) 등 10명. 이들은 소록도병원 웅벽에 길이 110m

예술위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소록도 과거·현재·미래 담아
시민들 소액 후원 ‘크라우드 펀딩’... 예술가들 10여명 재능 기부

에 달하는 대형 벽화(높이 3m)를 제작, 아픈 역사를 달래고 현재 남아있는 573명의 환자들과 199명의 주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염원을 담아낸다. 벽화는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구간으로 나눠 1916년 ‘어린 사슴’을 담은 섬, 소록도에 한센인들이 강제로 격리된 뒤 수십년 넘게 차별과 핍박을 받았던 과거, 소록도 사람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힘써온 이들과 환자들의 모습을 소록도 지도에 담아낸 현재,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형상화한 미래로 나눠 제작된다. 현지 주민·환자들을 스캐치한 뒤 주민들이 직접 붙이는 등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총 제작비 4000만원 중 기업의 지원을 받은 1000만원 외에 나머지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비용 3000만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화나눔 포털(fund.arko.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예술인과 기업이 나누고 함께하는 ‘예술 행위’인데다, 소록도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차별과 편견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 평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적었던 환자들과 주민들에겐 예술 작품에 대한 체험 기회도 마련되는 셈이다.



전체 길이=110m, A·B=과거, C=현재, D·E=미래



D-E(미래)

전남-경북, 하나되는 화합의 무대



전남도립국악단, 오늘 영남대서 창극 ‘백범 김구’
경북도립국악단, 내달 1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공연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과 경북도립국악단이 공연을 통해 화합의 무대를 마련한다. 전남도립국악단은 30일 오후 7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창극 ‘백범 김구’를 공연한다. (사)동편제관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와 국악단이 함께 만든 ‘백범 김구’는 지난 8월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해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인 백범의 삶을 창과, 노래, 무용으로 풀어낸 ‘백범 김구’에는 인방음악극에서 대령상을 수상한 주인공 김구역의 박춘택씨, 어머니역의 김향순씨를 비롯해 100여명이 출연하며 남도의 전통 수목화로 표현해낸 배경화면도 눈길을 잡는다. 경북도립국악단은 오는 11월 15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남도민요와 창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 내륙권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되는 이번 교류사업은 ‘영·호남 아리랑’이라는 타이틀 아래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현대무용단이 전국무용제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26일 여수 예술마루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 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의 ‘자메뷰’(안무 김미선)가 대상인 대통령상과 안무상·연기상 등 3개 상을 거머쥐었다. 광주 대표팀은 2011년 광주로얄발레단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무용제에서 두 차례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역은 광주가 처음이다. 조선훈 임지형(무용학과장)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광주현대무용단은 2003년 제12회 전국무용제, 2005년 제14회 전국무용제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조선훈 무용과는 올해로 21

광주현대무용단, 전국무용제 2년 연속 대상



전국 최초... ‘자메뷰’ 대통령상·안무상·연기상 수상

회째 열린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대표팀이 대통령상 7차례, 금상 4차례, 은상 5차례 등 총 16차례를 수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대상 작품 ‘자메뷰’(jamais vu)는 이전에 술하게 경험하고 익숙한 것이 어느 순간 낯설어지게 느껴지는 현상을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작품이다. 안무상과 연기상을 수상한 김미선씨는 조선훈 무용과 출신으로 2009년 주연을 맡은 ‘천개의 공간’으로 제18회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받았다. 김미숙 한국무용협회 광주지회장은 “지금까지 21번 열린 전국무용제에서 대상 7차례를 포함해 총 16차례를 광주대표팀이 수상, 광주가 무한임을 널리 알린 때는 조선훈 무용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포럼

아르코, 내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광주·전남의 고유문화 브랜드 개발과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이하 아르코)는 31일 오후 2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창조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문광부의 세종시 이전과 아르코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예술지원 정책에 맞춰 아르코의 미래비전 및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광옥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원의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단장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협력체계 개편’이란 주제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화대학원 교수(아르코위원)의 사회로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문인식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상운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상임이사,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소장, 김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의 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02-533-68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